

사순 제 4 주일

기도서 266면 (다해)

제1독서: 여 호 5, 9a, 10-12

제2독서: 2고린 5, 17-21

복 음: 루 가 15, 1-3, 11-32

숲 정 이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루가 15, 21).

강론

소리

“나의 일기장”

윤 양 호신부

2월 X X 일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님을 생각한다. 살던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도 쉬운일이 아님을 생각한다.

길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한동안 몸담고 살았던 본당을 떠난지 한달이 되었다. 아직도 가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땅을 잊지 못하여 때때로 하늘을 우러르며 기도를 드리곤 하지만 늘 허전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다. “잘 떠날 수 있어야 잘 만날 수 있을텐데...” 하고 혼잣말을 해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떠난 사제의 마음에는 때때로 인간적 아픔이 남아 있음을 감출 수는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본다. 그도 떠남의 사람이었다. 살던 땅을 떠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생면부지의 땅으로 떠난다. 하느님은 그 대신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는 한평의 땅도 없었고, 자손은 하느님께 도로 바치려 했던 이사악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신명을 다해 하느님께 성실했으며 떠남과 봉헌의 일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모범이 되었음을 생각한다.

사제는 ‘떠남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생각해본다. 사제로 축성되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떠나겠다고 서원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고백한다. 지금 나 자신이 많은 사람들과 살았던 땅을 온전히 못떠난 것처럼.....

하지만 죄많은 나를 당신품꾼으로라도 써주시는 하느님은 오늘도 이 사제를 용서하시리라 생각하며 이 하루를 감사 드린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3월 X X 일

오늘 고백성사를 보았다. 교우들과 함께 살 때에 고백성사를 좋아하긴 했지만 오늘 내가 한 고백은 조금 다른 감동을 주었다. 사제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세돌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송구스럽지만, 사제는 교우들보다 더 고백을 열심히 해야 함을 느낀다. 그만큼 생의 죄스러움을 더 안고 사는 까닭이리라?.

너그럽지못함, 용서하지 못함? 그래서 죄많은 사제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갈길을 다시 간다. 사제로서의 이 삶에 그리고 새로 맞아야 할 임지에서의 삶에 비록 또 넘어짐이 오고 광야의 어두움이 머물지라도 그분의 자비로움때움에 늘 새롭게 다시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밤 끝기도를 올린다. “하느님! 죄인인 나를 이끄소서. 용서하소서.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光州청문회는 끝나야 하는가

與小野大의 압력에 굴복, 국회의 청문회에 올려졌던 광주 청문회가 지난달 24일 끝을 보았다. 전국민의 시선을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잡아 두면서 80년 5월의 비극을 되새김질했던 광주청문회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가슴을 치는 처절한 悲史일 수 밖에 없었다.

여당인 민정당의원들의 자리가 텅빈 청문회장은 우리 정치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과연 말만의 民主化가 가능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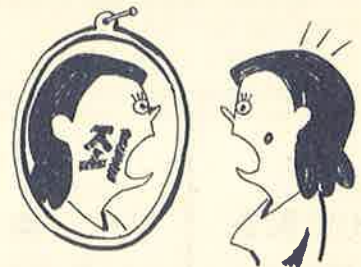
가해자가 낮부끄러워 피해자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상례라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여당의원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일까, 과연 그랬을까. 정치적 해결을 앞세운 후안무치의 행위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며 결국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간접적으로나마 모두 인정한 행위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百潭寺라는 데서 편안한 겨울을 나고 있는 金斗煥씨도 그렇고 용기없고 편협하고 비굴하기조차한 崔圭夏씨도 마찬가지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鄭鎬溶, 張世東씨 등 가해자라고 지목할 수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다. 光州의 아픔을 보자. 어느 증인이 말했다. 「易地思之」해보자고.

가해자측 증인으로 나서야했던 사람들의 부모 형제가, 자식이 눈앞에서 처참함을 당했다면 어찌했을 터인가.

잘못을 털어놓지 않을 때 뼈에 사무친 원한은 그 골이 자꾸 깊어갈 뿐이다. 모두 속시원히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에 해결문제를 생각해야 광주 문제는 끝이난다. 그래서 광주 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숲정이 산책



회개의 거울을 자주 보자!

교구장 공석중 우리가 할 일...

우리 교구는 순교자들이 흘리고 가신 피의 성지가 많은 만큼 한국에서 처음 자치교구로
설립된 이래 많은 교구장님들이 바뀌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주교구 초대교구장 김양홍 신부님께서 자치교구설립과 함께 1937년에 한국인으
로서는 처음으로 선임되셔서 불과 4년만에 사임하셨고 2대교구장 주재용 신부님도 역시
4년 재직중 1946년에 대구 교구장님으로 전보발령 받으셨습니다.

3대 교구장 김현배 신부님은 교구장 재직중 주교님으로 성성 되시어 불과 56세로
선종하셨고 4대 교구장 한공열 주교님은 1961년도에 선임되시어 10년간 재직중 광주
대교구장님으로 승진되어 가셨습니다.

그후 1년 8개월간 공석중 오기선 신부님께서 교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하시던중에
김재덕 주교님께서 선임되시어 만7년동안 교구장으로 계시다가 1981년 4월 10일 사
임하신 후 휴양중 7년만에 선종하셨습니다.

김재덕 주교님께서 사임하신후 1년 5개월간 공석중에 제주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께서
6대 교구장님으로 부임하시어 불과 6년 6개월만에 마산 교구장으로 전임되심으로서
우리 교구는 또 다시 공석중에 새 주교님을 기다리는 아픔을 견디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교구장 주교님을 모실 때까지 두손 모아 주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후임 주교님을 기다리면서 치명자산 개발과 시정시복 운동을 위해서도 더 더욱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부님, 수녀님,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하시기를 빕니다.

1989. 2. 28

교구장 직무대행 김 환 철 신부



성서와 함께

39. 구약성서의 형성 : 서 언

구약성서의 형성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한
순간에 탄생된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구전전승(口傳傳承)
으로부터 시작하여 자료의 수집 및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수세기에 걸쳐 성장해 왔다고 해야 마땅하다. 구약성서의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처음
발설되기 시작한 때부터 글로써 고정되기까지는 천년 이상,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천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구약성서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론들의 다양성과 복잡성뿐 아니라 상
당한 정도의 불확실성마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그 뼈대에 있어서 현대 성서 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론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선
택적으로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편의상 구약성서의 형성 과정을 삼단계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첫째, 구약성서를 구성하는 개별 책들의 저자들이
최초의 편집 과정을 거치기 전에 독립된 구전전승 또는 원
시적 기록문서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자료들을 분
석한다. 이 기본 단위들은 신화, 전설, 법전, 신탁 등 일정한
문학 유형을 갖추고 있다.

둘째, 구약성서가 독립된 문학 유형의 수집·편찬을 거처
완전한 책으로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 구약성서
전체를 율법, 예언서, 성문서집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전통적
분류를 받아들여 각 부분의 완성 과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기록들이 종교적 공동체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정경(正經)으로 인정되었는가 그 역사적 과정을
서술한다. 히브리 성서의 각권의 목록을 제시하는 한편 희
랍어 성서의 유래와 이들 성서 목록을 가톨릭과 개신교 안
에서 왜 서로 다르게 수용하는지도 밝힌다.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기정 (요썬)
효자성당 앞
☎ 82-6492

개 추 업
커피숍
자 존 심
대표 최광림 (세시리아)
위치: 시집가는날 2층

개 추 업
조림식가구, 각종선반, 화분다이어, TV장
(교우 특별우대함)
중앙인테리어총판
박대식 (요썬)
정철순 (이네스)
전주 중앙시장 종합상가옆
☎ 72-0669

수시모집·원장 직접 개인지도
**전주노라노한복
홍패션학원**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86-2715

잡 관!

“사제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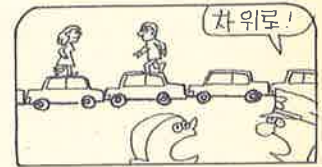
초봄이라 하지만 아직 새벽 공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로운 사순시기를 보다 의미있는 회개와 보속의 시기로 지내기 위해 매일 아침 해성학교 뒷뜰 숲정이 치명탑에 지성으로 모여드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추위에 손을 비비고 시려운 발을 뚱뚱 구르며 드리는 미사 이지만 새벽 공기 만큼이나 상쾌한 주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밤새 덥혀 놓은 따뜻한 이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지만 밝아오는 여명과 함께 “밤”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 사랑의 체험은 온 종일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몹시 쏟아졌습니다. 배수 시설이 좋지 않은 곳이기엔 치명탑 앞에는 흙탕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지요. 추운 새벽 발을 벗고 그 물 속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교우들이 침병 침병 그 물 속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놓여 있는 무거운 야외용 의자로 다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몇 사람의 희생 덕분에 우리 모두는 편안히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려운 발이 더욱 시려웠겠지요. 하지만 그들중 아무도 땀내거나 고통스러워 하지 않았읍니다. 그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밝아오는 아침 공기를 상쾌하게 마시며 집으로 돌아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가득하였음에 틀림없읍니다.

차가운 사순절의 꼭두 새벽!

조용히 흠여지는 교우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사제로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에 감사드리며 내일도 변함없이 이 일에 충실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요심이(813) 김병오



교 구 소 식

1. 교구장 공서시 교구장 직무대행 김한철 신부 선출 : 89년 2월22일 교구-참사회
2. 사목방문 : 교구청, 센타, 농장, 사회복지(오전10시)
3. 축! 독서직 수여식 : 3월6일(월) 오전11시 광주가톨릭대학교 성당 *김용수(로렌조) 중앙, 이완재(다태오) 덕진, 장상호(시몬) 둔율동
4. 3월 성소자 모임 : 3월12일 오후2시 가톨릭센타(3층 회의실) 대상-중·고, 대학생, 일반인(남자)
5. 사회복지 후원회(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3월6일 10시30분 사회복지회관
6. 본당사회복지 부장·차장 애령부장·차장연수회 : 오전10시 센타
7. 본당여성부장·차장, 구역부장·차장 연수회 : 오전10시 센타
8. ME 팀장 지역대표모임 : 3월13일 오전10시~오후6시 센타
9. 전동 어린양의 모후 소년 꾸리아 검 옥외행사실시 : 3월12일 1시
10.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3월6일 오후6시30분
11. 테클라 성소모임 :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젊은 여성들의 모임. 성바오로 딸 수도회(성바오로 서원 2층) 오늘 오후2시
12. 살레시오 수녀회 성소모임 : 3월12일 1시30분 장소-광주시 동구 자산동 살레시오수녀원 (062)27-1017 회비500원

전주교구 가톨릭 사진동우회 창립총회

- 일시 : 1989. 3. 12(일)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센타 교구청 홍보국 ●준비물 : 촬영장비

숨다리 몬테소리 아가놀이방
원 아 모 집

모집대상 : 0~5세, 신생아반 - 5명, 유아반 - 20명
* 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최 병례 (양당), 최 혜정 (누굴다)
전주시 전동 1가 230-2 (전영화물 앞)
☎ 83-1658 — 차량 운행 —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상재현
25분 원성
전북칼라현상소

대표 오 회웅 (양부리시)
전주시 교사동 1가 인금메쉬 남쪽
(오거리) ☎ 83-5335

한 복
약혼·무용·파티·결혼
고 려 주 단

전 광원 (마루코)
김 삼례 (소피아)
전주시 교사동(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교 사 초빙

과목 : 교편(여)
자격 : 미혼자로서 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 호적등본 1통,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대학교성적 증명서, 이력서 각 1통, 자격증 사본
제출기한 : '89년 3월 8일 오후 5시
제출장소 : 성실여고 서무실
학교법인 해성학원 이사장

신용과 품질을 보증하는...

전주왕궁가구

이태리가구(직매장)
각종 나전칠기 월걸, 티크장및 침대
의침대, 진장 (혼수감 특별우대)
유숙자(수앤나), 국 장호
☎ 84-5677(자택) 84-8159(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술·대여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맥' 입니다.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사순절 특강 : 사순절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전통성당에서 있습니다.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 석
수녀원 82-9662

1. 사순절특강 : 지구 3월7일 7:30분 전통성당 주제-사회번혁의 주역들 본당-8일 7시30분 주제-유유한 사랑은 행복하다.
2. 성령쇄신 세미나 : 3월30일 7시30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7주
3. 본당합동판공성사 : 3월13일 7시30분 4. 새신자방문 : 8일 중노1가 3,4만 전부남 중노2가 3,4만 수녀님 9일 중노1가 5,6만 전부남 중노2가 5,6만 수녀님 5. 회의 : 성심회 성가대원대회 7일 어머니미사후 사목회 ME국화퇴보위 10일 7시30분 6. 은인께 감사 : 조영일(엘리사벳) 10만원 7. 여성분과장, 차장, 구역분과 부장 차장연수회 : 12일 10시 8. 꾸리아월례회 : 12일 2시 9. 초등부, 중등부 교리개강 : 12일 초등부교리 4시 교리서-1,000원 중등부교리 오전8시 교리서-1,700원
10. 축! 결혼 : 12일 12시30분 신랑-강성길 신부-임인숙(마리아) □지난주봉헌금 : 612,700원 □교무금 : 522,3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 군
수녀원 86-3454

- ※ 3월은 성요셉 성월
1.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후 2. 대건회 : 오늘 공식미사후(부부피정) 3. 사순절 특강 : 7일 오후8시 전통성당 4. 자모회 : 9일 오전 10시
 5. 안나회 : 9일 오전10시 6. 십자가의 길 : 10일 저녁미사후 7. 여성분과회 : 11일 오전10시 8. 울드레아 : 12일 공식미사후 9. 꾸리아 : 12일 오후2시 10. 빈첸시오회 : 12일 꾸리아후
 11. 청년회 : 12일 저녁미사후 12. 어머니성가대 : 부활성가연습 3일부터
- 금주전례 : 해설-윤기자 독서①유경수 ②이현정
봉헌-육경수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①강기연 ②이주자
봉헌-강기연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 468,650원 □교무금 : 795,8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 천

- ※ 축 꾸리아 창설 : 오늘 공식미사후
1. 소록도 방문 : 15일(수) 오전6:30 출발, 회비7,000원 다음주까지 완납하세요.
 2. 가정방문 : 7일(화)-마차, 수월 8일(수)-신홍 9일(목)-외어두 10일(금)-내어두, 석장
 3. 예비자교리 : 공식미사후 레지오설 한수녀님 수고하시겠습니까.
 4. 성소후원 저금통 : 잘 키우고 계시는지요?
- 지난주봉헌금 : 179,930원 □교무금 : 30,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

- ※ 3월은 성요셉 성월입니다.
1. 회 의 : 자모회-3월8일(수) 10시30분 반장회-다음주공식미사후
 2. 알 림 : ①판공성사일정-14일, 1만~5만, 15일 6만~10만, 16일 11만~15만, 17일 16만~20만, 18일 학생, 19일 공무원, 21일 21만~27만 및 기타반 ②성사시간-매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5시까지 *판공성사시간 후에는 일체판공성사치 없음. ③부활축일 성가연습 : 7일부터 오전10시 ④영재사 종합교리 : 8일부터 11일, 15일부터 18일, 시간오후7시 ⑤꾸리아행사-9일기도 13일~21일까지 22일 아치에스 행사 ⑥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수녀님께 연락
- 지난주봉헌금 : 425,540원 □교무금 : 321,000원

*용머리

사제관 6-3335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황 희 상

1. 울드레아 : 매달 둘째주 공식미사후
2. 축 / 어머니 성가대 발족 : 단원 구역애의 27명
3. 축 / 사목회 발족

4. 미사시간 변경 : 가정방문동안 저녁미사를 7시로 변경합니다. 판공성사 : 매일 미사후에 있습니다.

□지난주 봉헌금 : 293,290원 □특별기금 : 150,000원
□교무금 : 158,000원

*전동

사무실 84-3222 ·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수 현
유치원 84-8347 ·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선 태
사제관 82-6232 · 82-7245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헌금 바랍니다. ※ 89년 교무금 신임바람
1. 사순절 특강 : 7일(화) 저녁8시 주제-사회번혁의 주역들 강사-조철현신부
 2. 돈보스코회 : 오늘 공식미사후 3. 구역봉사자회 : 오늘저녁7시
 4. 반기도회 : 7일~10일 반미사 : 7일-전동1만 8일-동교동1만 9일-남노송동4만 10일-서완산동3만
 5. 유아세례 : 11일(토) 오후3시 6. 부활판공성사표배부 : 13일~18일
 7. 금주보수비헌금액 : 1,043,600 정순조-일만 조풍기-삼만 황우가-십칠만 정대섭-이십만 김옥자-오만 이순기-십만 백복주-일만 김윤주-십오만 최종녀-이만 신삼래-삼천 박일레-삼천 김자영-37,600 김성녀-이만 강순금-오천 양순래-일만 선옥순-이만 김인준-이십만 *현재 보수비 현금 총액 : 9,528,600원
 8. 성심유치원 "보조모모"구합 : 사각-18세~21세(중졸이상) 유치원 수녀님께 연락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 환
수녀원 87-0229

1. 신축금 신입자 : 조도미, 니카5만원, 익명5만원
 2. 불판공성사(본당) : 13일(월)전10시-12시 후2시-5시 후7시-10시
 3. 불판공및 가정방문 : 7일(화)전-우음 후-양생 9일(목)전-마음 후-광국 평준 4. 오늘공식미사후 : 구역장원래회 제대회
 5. 신학생후원회 신입자 : 김나림, 이복남, 익명1 장학회 신입자-김나림 6. 형제회 : 8일(수)전10시-5.6 10시반-7.8 11시-9 후2시-4 2시반-2 3시-14 9일(목)후7시반-1 8시-27 8시반-28,29 10일(금)후7시반-3 8시-10, 11 8시반-13
 7. 사제관-수녀원 비품 신입자 : 익명-이불, 웅점세트-오양민 한상철-침대코 8. 차주전례 : 해설-함문권 독서①김나림 ②김광탁 봉헌-유광수 부부
- 지난주봉헌금 : 290,170원 □교무금 : 379,900원
□자선헌금 : 13,800원 □신축금 : 143,234,836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증 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 현
수녀원 84-4804

1. 사순절 성비 · 성금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2. 일신자1단체 가입운동 3. 3월19일날 본당에서 헌혈합니다. 11시미사후-6시까지
 4. 친목바둑대회 : 3.12 오후1시-6시(교육관) 5. 구역봉사자 모임-금주(수)11시교육관 울드레야모임-차주 11시미사후
 6. 부활성가연습 : 3.6부터 매일 7. 주일학교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8. 십자가의 길 : 미사30분전에 9. 평일미사에 적극참여합시다.
 10. 청소담당 : 금주-쌍용주택 차주-거성국민APT
 11. 꾸르실료수료자 : 박현석(요셉) 여성28차-4-B-4-16
- 지난주봉헌금 : 668,200원(920명) 주일학교7,880원(137명) 중교생23,000원(126명) □교무금 : 1,005,500원 □금요나눔의 헌금 : 60,630원(70명) □2차헌금 : 140,150원 □교무금 총신입세대 : 414세대 * 교무금을 빠짐없이 신입합시다.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

1. 사목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후
 2. 사순절 특강(사회번혁의 주역들) : 7일(화) 저녁8시 전통
 3. 성모회 월례회 : 10일(금) 어머니 미사후
 4. 꾸리아 월례회 : 11일(토) 1:30
 5. 차주모임 : 공식미사후 울드레아 월례회
 6. 부활판공일정 : 8일(수) 여매 반절리 9일(목) 거성 10일(금) 독배 승정
- 금주전례 : 해설-문옥선 독서①김영호 ②최상선 기도-김홍두 정영호
차주전례 : 해설-문옥선 독서①오원식 ②박인순 기도-표근중 김영자
- 지난주봉헌금 : 364,400원 □교무금 : 791,000원
□나눔의 헌금 : 199,390원